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혹은 ‘비평의 문학사적 탐구’

이경재*

I. 쇄말주의(頽末主義)를 넘어서

방민호의 평론집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꽃은 숨어서 피어 있었다』(예옥, 2018)라는 제목부터 긴장감을 내뿜는 문제작이다. 문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 ‘문학사’와 ‘비평’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흔히 인식되고는 하였다. 문학사가 문학연구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거의 객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과 가치의 인과적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평이란 당대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시대 문학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학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분석과 종합을 주로 한다면, 후자는 진단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방민호의 이번 책은 두 가지 활동을 하나로 결합하고자 하는 선명한 의지가 드러나며, 이것은 “이 책의 성격을 가급적 분명히 하기 위해 더 연구에 가깝거나 더 현장 비평에 가까운 많은 글들을 상당 부분 수록하지 않았다.”(8)라는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93쪽에 이르는 이 저서는 비평을 연구에 근접시키는 것인 동시에 연구를 비평에 근접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금 한국문학을 지배하는 것은 일종의 쇠말주의이다. 연구와 평론이 분리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이며, 연구 역시도 자신만의 미시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학계의 공론장은 점점 협소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를 조망하는 담론이나 시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대로 된 문학사나 문학개론 등의 단독 저서가 출판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쇠말주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시, 평론을 아우르고 구한말부터 2010년대의 문학까지를 아우르는 이번 저서는 나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려 22편의 글이 실려 있는 이번 평론집에서 일반적으로 평론에 해당하는 글은 5편 정도로, 대부분의 글들은 당대의 문학현장이 아니라 이미 문학사의 정전에 오른 작가나 작품, 혹은 테마에 대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저서는 굳이 ‘평론집’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이러한 낙차는 저자가 문학현장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결과이다. 방민호는 “한국현대문학사 전체가 대화를 위한 현장”(5)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비평도 비평이지만 문학사 연구를 외면할 수 없는 의무감이 작용하면서 내 비평은 현장으로부터 거리가 먼, 백 년 전, 수십 년 전의 일들에 고개를 묻어야 했다.”(7)는 말처럼, 대학교 교수라는 저자의 현실적 처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I. 전통과 모던의 양안(兩眼)으로 바라본 문학

이번 저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하나의 문학현상을 해명함에 있어 소위 전통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맥락과의 연관성을 두드러지게 의식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근대 전환기의 문학 현상을 바라볼 때이다. 방민호는 이 시기 문학을 외래적 요소와 연관 짓는 논의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 문학이 고유한 전통과의 깊은 연관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글들로는 「한국에서의 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로의 이행」, 「신소설은 어디에서 왔나?」, 「이광수 『무정』을 어떻게 읽어 왔나?」, 「신라의 발견」 논쟁에 붙여」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로의 이행」은 근대문학의 기점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근대문학의 지표들(indices)을 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근대문학 또는 현대문학으로의 이행은 1860년대부터 시작되어 넓은 시간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소설은 어디에서 왔나?」는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불리는 「혈의 루」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다. “『혈의 루』는 일본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라기보다는 17세기에 변화된 전기소설 양식을 한글소설의 형태로 새롭게 재편한 작품”(79)이라고 주장한다. 「이광수 『무정』을 어떻게 읽어 왔나?」는 일제 시대 김동인부터 최근에 이르는 이광수 연구의 큰 흐름, 즉 김동인, 임화, 박계주와 곽학송, 김윤식, 윤홍로, 이재선 등의 논의를 정리한 글이다. 이광수 『무정』의 사상은 “타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슬픔 없는 세계로서의 조선을 겨냥한 것”(118)이며, “그 원천은 안창호의 것으로 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18)고 주장한다. 「신라의 발견」 논쟁에 붙여」에서는 ‘신라의 발견’론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외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것은 “서구 근대를 가치의 척도로 보고, 한국의 것은 이에 미달 또는 과잉된 비정상성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한 것”(485)이기도 하다.

『무정』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저자의 기본적인 관점은 한국현대문학사를 “전승되어 온 것과 외부에서 온 것을 종합한 것”(482)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 저서에서는 근대전환기의 문학을 ‘전승되어 온 것’과 관련시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문학연구가 지나치게 ‘외부에서 온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저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방민호가 전통지향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그 복잡다단한 한국현대문학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저자는 외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좋은 문학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의식하며 창작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버지니아 울프는 박인환과 한강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기 위해 두 번이나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며, 일본 문학 역시 중요한 참고 지점으로 등장한다. 방민호는 “세계 철학사나 문학사의 전위적인 지적 국면들을 섭취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이 현대적인 세계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444)하는 평론가인 것이다.

「한국 출판시장의 창에 비친 일본 소설」은 한국 시장에서 많은 지분을 확보한 일본 소설의 특징을 나름대로 탐구하고 있는 소설이다. “현재 독자들의 욕구와 한국작가들의 총합적인 역량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고 이를 메워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가까운 다양함과 낮은 익음을 고루 갖춘 일본의 소설들”(393)이라는 것이다. 맹목적인 일본 동경이나 일본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이 글에서는 무라카미 류, 무라카미 하루키, 가토 노리히로, 기쿠치 칸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수용소 문학」에 관하여는 탈북 문학(특히 김유경의 『인간 모독소』)을 다루면서, 세계적인 명작인 조르조 아감벤의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이나 술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와의 꼼꼼한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

처럼 세계 문학이라는 맥락을 의식하는 것은, 「장편소설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훌륭한 장편소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유”(503)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방민호에게 가장 이상적인 문학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학의 전통에도 깊은 자의식을 가진 작품일 것이다. 이번 저서에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논의되고 있다. 「한강 장편소설 『채식주의자』의 ‘나무되기’」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새로운 존재 방식과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442)으로서의 ‘동물 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새롭게 읽어낸 글이다. 나아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나 이상의 「날개」 그리고 이효석의 작품들과 치밀하게 비교함으로써 이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성취의 보편성과 새로움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

Ⅲ. 문학사의 새로운 이해

22편의 글 중에는 문학사 이해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주목할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경성 모더니즘 개념 구성에 관하여」, 「김환태 비평이 한국에 남긴 것」, 「해방 후 8년 문학사에 관하여」, 「박인환의 문학사적 위상」, 「김수영과 ‘불온시’ 논쟁의 맥락」, 「사회구성체 논쟁의 시대-1980년대 문학을 위하여」, 「199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인간의 본원적 생명력에 대한 직관과 경의」가 여기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해방 후 8년 문학사에 관하여」와 「박인환의 문학사적 위상」은 저자의 독창적인 시각이 번뜩이는 중요한 글이다.

「해방 후 8년 문학사에 관하여」에서는 해방 직후, 단독정부 수립 이후, 6·25의 발발과 정전으로 구분되던 해방 후 8년의 문학사를 연속성과 인과성에 바탕해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월북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던 월남문학을 전면적으로 사유하는 것과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과 관련시켜 8년 문학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진단은 여러 가지 사유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박인환의 문학사적 위상」은 문청 기질의 시인이자 피상적 모더니스트 정도로 자리매김 되어 온 박인환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을 통해 박인환은, 김기림과 오장환의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해방이 낳은 ‘최초’ 시인”(183)이자 이상(李箱)에 버금가는 “지성적 실력가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수성과 예지력을 갖춘 ‘천재’”(201)로 새롭게 조명된다.

여타의 글도 흘러 보낼 수 없는 의견으로 채워져 있다. 「경성 모더니즘 개념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주의, 정치적 함축, 상호텍스트성, 장르 접근 및 통합 경향,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관심, 언어 중시의 형식주의, 숭고와 데카당스 미학의 변주, 히스테리 폐결핵 매독 등 질병의 수사학, 개체성의 발견과 그 심층, 미의 원천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탐구라는 10가지 지표를 갖는 경성 모더니즘 개념을 가설적으로 제시한다. 「김환태 비평이 한국에 남긴 것」은 김환태 비평이 지닌 고전적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글이다. 저널리즘 비평에 아카데미즘적 성격을 세련되게 착목시킨 것, 일방적인 정론적 비평을 넘어선 것, 비평 문장을 혁신한 것을 들고 있다. 「김수영과 ‘불온시’ 논쟁의 맥락」은 김수영이 참여문학론의 정치(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이지만 비정치적이며, 비정치적이면서도 정치적”(239)인 문학에 도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체 논쟁의 시대-1980년대 문학을 위하여」는 방민호의 인간적 육성이 가장 많이 묻어나는 글이다. 대학에 입학한 1984년부터 민정당연수원 농성 사건에 연루된 1985년의 경험으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방민호는 그 시대 대학가의 핵심적인 담론이었던 사회구성체 논쟁과 얽힌 다양한 정치적 주체와 그들의 이론적 성향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점차 한국문학연구의 본격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1980년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는 1994년 등단한 방민호가 가장 정열적으로 활동했던 1990년대 소설의 전개양상을 총괄하고 있는 글이다. “전면적인 개방화 양상이야말로 1990년대 소설을 배태시킨 가장 큰 요인”(269)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후일담 소설, 여성소설의 등장과 성행, 근대 이후 담론과 관계된 소설, 가상현실이 전면화 된 소설, 소설적 공간의 확장, 역사와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인간의 본원적 생명력에 대한 직관과 경의」는 황석영론으로서 초기작인 「밀살」부터 2000년대 대표적인 장편인 『심청』에 이르는 작가의 방대한 문학세계를 지탱하는 황석영의 리얼리즘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속의 차원을 초월하는 본원적인 생명력에 대한 직관과 경의”(437)를 통해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작가연구 아직도 유효할까?」는 문학연구의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글이다. 저자는 한쪽에서는 신비평주의가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현실주의가 문학연구의 주류적 위치를 교차적으로 점유해 오는 상황에서, “가장 촌스럽고, 덜떨어진 연구방법으로 간주”(571)되는 작가연구가 지닌 의의와 유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태준, 백석 등을 예로 들어 작가연구가 “문학연구의 쟁점들을 심문”(577)할 수 있으며, “문학사를 귀납적으로 연구”(585)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작가연구가 최신의 이론을 통해서도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IV. 삶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문학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는 3장에서 살펴본 글들처럼 문학사에 초점을 맞춘 논의와 더불어 당대 문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논의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사는 어디까지나 완료형의 문학일 수밖에 없기에, 그에 대한 논의만으로 시종한다면 문학현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서의 ‘비평적 탐구’라는 말은 공소해 질 수밖에 없다. 방민호는 이 저서에서 거침 없이 당대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한다.

「로망스 또는 ‘소설’에 관하여」에서는 소설에 대한 일반 이론을 펼치면서도, 결국 한국 문학이 나아갈 하나의 방안으로 “‘소설적인’ 것과 로망스적인 것의 접합”(42)을 내세운다. 「최근 문학에 관한 원근법적 성찰과 모색」은 진정한 문학의 조건으로 ‘제약들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펼치는 문학’, ‘사랑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문학’, ‘자신 앞에 참조해야 할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아류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깊이 자각하는 문학’, ‘상상과 환상을 중시하는 그 연장선에서 사실에의 증언에 관심을 돌리는 문학’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방민호는 ‘지금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촉구한다. 「최근 한국소설과 증언」은 세월호와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등을 들며, “해방 직후, 1980년대 전반기에 이어 한국문학은 다시 증언으로 돌아가야 한다.”(533)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용소 문학」에 관하여-『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수용소 군도』, 『인간 모독소』는 탈북 문학이 단순

한 비판이나 고발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야만과 역설과 아이러니를 깨닫게 해준다고 고평한다. 결국 “삶의 근본을 향한 질문에 답을 내린 문학”(534)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른다.

방민호는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에서 세계적 보편성과 역사적 전통을 동시에 의식하는 바탕 위에 한국문학의 여러 의미 있는 결절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식화된 기존의 문학사 이해를 혁신하는 동시에, 상상력에 바탕해 본원적인 삶 자체의 표현에 이르는 문학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술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와 현실에 굳건히 뿌리 내린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가 제시하는 가장 인상적인 지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이 두꺼운 책은 무엇보다도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다분히 의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방민호는 「장편소설을 다시 생각한다」의 1장 ‘비평에 관한 우화들’에서 비평가는 “의식의 진정한 독립성을 쟁취”(492)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하여 “비평은 고도의 창작으로서, 기성의 창작품에 의존해서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소재로 삼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493)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새로움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논의의 대상이 새롭거나 연구방법론(시각)이 새롭거나 해석이 새로운 것이다. 방민호의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는 주로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움을 확보하고 있다. 그 해석의 새로움을 뒷받침할 논의 대상과 연구방법론(시각)을 확보하고 더욱 확충시키는 작업은 동시대 연구자(평론가)들이 함께 깊어져야 할 공동의 집일 것이다.

